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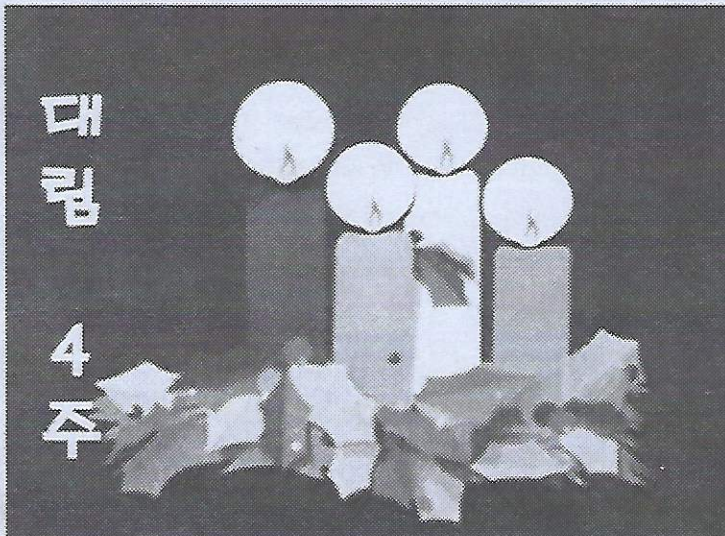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4주일

제36권 4호(다해) 2015년 12월20일

[묵상]



현재의 재림이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에게 나누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때 마다 만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미래의 재림이란

심판의 날에 오실 주님을 만나는 것,
아무도 피해 갈 수 없는 운명의 날,
그 날과 그 시간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날.

그러나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던 심판의 날,
억울함과 우울함이 벗겨지는 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
십자가가 영광으로 바뀌는 날,
진실과 정의가 밝혀지는 날,
희망의 날,
기쁜 날이 되도록 사는 것.
길은 단 한 가지 매일 매일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반찬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성소후원회(첫목요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에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박 레이몬드 & 연옥영혼
	(생)최테레사가족 & 박무부 로이가족, 김옥안토니오 & 김행선 올리안나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진은란 아네스, 최병덕 바오로 & 최효선 안젤라, 이사범 로벨토 & 이안드레아, 이종수 마틴, 현시영 요셉, 김복님 마리아 & 김차옥 요셉,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 변해경 올리안나, 김영수 테레사, 김현자, 노정순 베로니카, , 이우천 스테파노, 이용식 베드로, 송봉규 요셉 & 송공랑 카타리나, 김순겸 사도요한 신부
	(생)세레자들, 임영자보나가족, 최열자 안나, 황윤재 베드로 가정, 박해경 레나타 & 박진수 스테파노 & Joy 가족, 홍석인 체칠리아, 이순자 비비아나 & 이민상 요한, , 정동호 하상바오로, 홍막달레나, 박영오 & 강재순, 오세원 아타나시오 & 오혜숙 루시아, 제인전 베로니카 가정, 박정미 클라라, 김화경 카타리나, 이근모마리노 + 이형자 리드비나, 강순복 요세피나가정, 석순영 아네스, 배영민 아나스타샤, 홍광선 요셉 & 이호미엘리사벳, 김임식 마누엘라수녀,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창근 베드로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미카 예언서(Prophet Micah)5,1-4

화답송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
소서. 당신 권능을 펼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
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이다. ◎

제 2독서 히브리서 (Hebrews)10,5-10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루카(Luke) 1,39-45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국 교회의 역사

2-1. 초기의 신앙 공동체(1784-1801년)

그는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순수한 한글로 교리서
「주교요지」(主教要旨)를 저술하였다. 이 책에서 천주교
교리를 요약하여 제시해 준 정약중은 1801년의 박해 때
에 순교하였다.

그러나 초기 교회는 조직적으로는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최창현(崔昌顯, 1754~1801년)은 ‘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교회 조직과 발전에 초석을 놓았으며, 강완
숙과 윤점혜(尹占惠, 1776~1801년)는 천주교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여성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당
시 교회에서 ‘여회장’(女會長)으로 불렸다. 그리고 충청
도 지방에서 활동하던 정산필(鄭山弼, ?~1801년)이나
‘김승정’의 경우처럼 지방에서도 ‘회장’을 임명하였다. 이
회장들은 주문모 신부가 교회 조직을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임명하였다.

2-2. 초기 교회에 대한 박해(1801~1831년)

1784년 교회가 세워진 이후 얼마 아니 가서 신자의 숫
자가 1,0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뒤에는 대략 4,000명의 신자가 신앙을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주문모 신부가 입국한 이후 교세는 더욱 발
전하여 1800년에는 대략 1만여 명의 신자들이 있었다.
신자들은 대부분 정치적 특권이 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힘없는 민중들이었으며, 여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자 천주교를 반왕조적
(反王朝的) 종교로 규정한 집권층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일대 탄압을 단행한다. 1801년에 단행된 박해는 나이 어
린 교회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으니, 이 박해로 말미암
아 주문모 신부가 순교하였다. 이때 주문모 신부는 중국
으로 피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피하면 신자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순교의 길을 택하였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24	129	129
봉헌	269	265	265
성체	303	287	287
파견	130	131	131

안으로 내마음을 돌려서 하느님의 자비를 만나십시오

1.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제1독서: 미카 5,1 참조)

원주민과 백인 사이에 ‘쇠도끼’를 두고 달리 생각했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보잘것없는 도구로 나무를 자르고 있는 원주민들을 본 백인들이, 나무를 단번에 많이 쓰러뜨릴 쇠도끼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백인들은 원주민들이 쇠도끼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 추장은 “우리는 당신들 덕분에 더 많이 쉬게 되었습니다.”라고 찾아온 백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핍’은 모자랄까 봐 미리 쌓아두려는 생각이요, ‘가난’은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1독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고 합니다. 결국 메시아는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다라도, 가난한 마음 곧 하느님께 열린 참된 마음에 오십니다.

2. “당신의 뜻을 이루려 왔습니다”

(제2독서: 히브 10,7)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저의 하느님, 저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뜻만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런 성인의 확신은 결코 고행(苦行)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 마음이 온전히 열리게 되어 받은 은사(恩賜)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리스도인은 고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마음을 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하느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확신에 찬 기쁨의 길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만케 하는 ‘기쁨’이 됩니다.

3. “마리아는 길을 서둘러 갔다”

(복음: 루카 1,39 참조)

2005년부터 우리나라 가르멜 수녀님들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진출해서 봉쇄수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국 땅과는 여러모로 다른 환경은 고사하고, 그리스도교의 불모지에서 봉쇄와 정주(定住) 생활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녀님들은 ‘나가서 선교하는 교회’(「복음의 기쁨」 17항 참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주님의 ‘역사(役事)와 섭리’를 깊이 체험하신 성모님의 모습을 잘 전해줍니다. 바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 길을 떠나게’ 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체험은 단지 자신 안에 안주하지 않고, 형제를 찾아 함께 나누도록 재촉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역사(歷史)입니다.

4. 교형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안에서도 더 보잘것없는 ‘말구유’를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성 요한은 ‘피조물 잇고, 안[內面]으로 내 마음 돌려서, 님사랑하자’고 권고하였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자비의 특별 희년’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자는 초대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안으로 마음을 돌려서 주님의 자비를 만나’는 은총이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연정 신부 / 절두산 순교성지 주임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데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이민상 요한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순자 비비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서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박희자 마리아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1,2반

- 4 -

◆백삼위 배론 청년회 송년 '배론의 밤'안내

(새 신자 및 대학생 Welcome Party)

방학을 맞이하여 돌아온 대학생, 청년 및 새 신자들을 위한 Welcome Party 입니다. 많이 참여토록 부모님들께서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2월26일(토)특전 미사후
- 장소 : 강당
- 대상 : 배론 청년회원, 방학을 맞이해 본당에 온 청년들, 청년회에 관심 있는 본당신자들
- 연락처 : 유보나 보나☎(310)755-9837

◆2016 한인 가톨릭 청소년대회 KCYD 접수 안내

매년 FIAT 장학 재단에 주최로 열리는 한인 가톨릭 청소년 신앙대회의 참가 접수를 이번 주와 다음주 2주간 받습니다.

미사 후 주일학교 교사실로 올라오시면 신청서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인원에 따라 학부모님의 라이드 봉사자 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날 봉사해주실수 있으신 분이 계시면 신청서 제출하시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날짜: 2016년 1월 2일 토요일 아침 8시 체크인
- 장소: Christ Cathedral
- 주소: 13280 Chapman Ave.
Garden Grove, CA 92840
- 대상: 8학년-12학년
- 참가비: \$30 (12/27/15 후에는 \$40)
- 문의: 주일학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겨울방학

- 12월20일, 27일 두 주일 수업 없습니다.
-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그대로 영어로 진행합니다.
- 개학 : 1월3일(주일)

남가주 소식

◆ 성경대학 CD판매안내

2011년 6월에 시작된 성경대학강의가 매 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개강하여 2015년 1월 4년여 여정을 끝냈습니다. 이여정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교우들을 위하여 그간의 강의내용을 CD로 만들어 함께하고자 합니다. 예수회 송봉모 신부의 성경대학 CD로 영적 성장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1학기부터 8학기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 문의 : 아그네스 성당사무실(323-731-4433)
업무시간 (수~토) 오전 10시~12시, 오후1시~5시)

E-Mail : stakcc@gmail.com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송년모임으로 대체 12/09(수) 오후 6시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김민수 바오로 12/12(토) 오후 6시
	3	윤미에 안나 560-7120	토런스 한식당(송년회) 12/18(금) 오후 7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박근식 미카엘 294-9444 12/04(금)오후 7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윤화경 바오로 316-7819 12/12(토) 5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방미숙 마리아 12/11(금) 10시 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12/18(금) 오후 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데레사 12/14(월) 11시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12/12(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옥올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정동호 하상바오로 12/14(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1 /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권태만 실베스텔 749-3151 12/12(토) 6시30분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최재은 베드로997-9006 12/18(금)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12/11(금)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12/11(금) 7시 성당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최수지 카타리나 12/18(화)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회장단 회의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의	1시
------	----

요즘에는 공심제(空心齋)를 지키지 않는 신자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성체제 대한 존경과 영성체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최소한 영성체 한 시간 전부터 음식물을 먹지 않는 공심제는 공복제(空腹齋)라고도 합니다. 자정부터 음식뿐만 아니라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었던 엄격한 규정은 1953년까지 실행되었던 교회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 이후, 신자들에게 자주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목적 배려로써 성체를 영하게 되는 한 시간 전부터 물과 약 이외의 식음을 삼가 하도록 규정이 고쳐졌습니다. 다만 노인들과 병약자 그리고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비록 한 시간 이내에 음식을 조금 먹었더라도 성체를 영하도록 권합니다. 또 같은 날 두 번 이상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에게도 미사 거행 사이에 한 시간의 간격을 갖지 못할 경우라면 약간의 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회법은 언제나 최대의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성체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리나라에서 공심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성체에 대한 사랑과, 성체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정도의 희생은 기쁘게 감수할 수 있는 일이니깐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욕심, 미워하는 마음, 질투심, 이기심 등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닌-마음'을 비우는 참된 '공심(空心)'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옳습니다.

[길을찾는 그대에게]

그 뜻이 '크게 하다'는 의미를 지닌 마니 피캣(magnificat)을 한국어로는 성모찬가라고 하는데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 '찬송하다'의 그리스어 원문은 'megalnei'이고 이 단어의 라틴어 번역이 '마니피캣'입니다. 그 뜻은 '크게하다(만들다)'이지요. 이 원 뜻은 우리에게 참된 찬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데요. 찬미란 상대방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그 '큼'이 나를 주눅 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도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큼'이 내 작음을 드러내서 초라해진다면 그 관계는 굴종일 뿐, 진정으로 상대를 찬미한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니깐요. 물론 마니피캣에서 가장 놀라운 현상은 크신 하느님께서 작은 마리아 앞에서 아주 작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고 위대한 분이 작고 평범한 한 처녀의 허락을 청하셨다는 점입니다. 성모님은 보잘 것 없는 자기를 이렇듯 '소중하게', '크게' 대해 주시는 하느님 앞에서 깊이 감동하셨지요. 작은 자기 안에 크신 하느님을 맞이하며 온몸으로 "당신은 정녕 크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모님을 본받는 신앙인들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가 주님 안에서 쑥쑥 자라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 유입니다.

성모찬가를 부를 때마다 성모님의 마음을 새겨 노래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당겨 살게 될 것입니다.

◆ 장재봉 신부/ 선교사목국장

[교리 상식]

성탄 구유는 왜 필요할까요? 예수 성탄 대축일은 어떤 날인가요?

☞ 하느님의 사랑은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거들어 주고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 주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예수 성탄 대 축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을 당연히 기억하고 하느님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 『에비 신자 궁금증 105가지』 / 가톨릭출판사

아주 사소한 것으로

겨우 그런걸 가지고 그러나 하지만
 겨우 그런 걸로 달렸던 마음이 열리기도 합니다.
 내가 위로 받을 때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작 그것 때문에 그러냐고 하지만
 고작 그것으로 마음에 통이 생기고
 돌아서고, 딱딱하게 굳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다쳤을 때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 이영 -

하느님의 용감한 종 오바드야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적의 손에 함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가고, 온 나라는 비탄과 고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티나 남쪽에 살던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그들을 침략하고 약탈을 하는 등 몹시 괴롭혔습니다. 이때 오바드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에돔인들에게 어떤 심판이 내릴 것이라 예언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오바드야 1,1-4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야곱과 에사우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에돔은 기원전 8세기경에 독립했습니다. 에돔은 사실 에사우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야곱의 후손들과 형제국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에돔 인들은 이를 고소하게 여기면서 약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노예로 사서 이득까지 취하였습니다. 에돔은 지형적으로 바위굴이 많고 자연적인 요새가 많은 산악지대로, 침략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한 줄 알고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오바드야 예언자는 에돔인들의 야비하고 잔혹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에돔 민족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오바드야 1,5-18

오바드야란 ‘하느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적은 항상 가까이 있다는 말이 있지요. 에돔의 죄악은 형제간의 불화, 동족간의 분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지나 이웃의 고통과 수난에 눈감고, 도리어 그 틈을 타서 이익을 쟁기는 것은 파렴치한 죄악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때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또한 가까운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직접 수탈하거나 고통을 주지는 않더라도,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고소해하고 빈정거린다면 그것도 분명히 죄악입니다. 에돔에 벌을 내리겠다는 오바드야의 예언은, 하느님께서서는 부당한 것을 바로잡으시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너는 네 아우의 날을, 그 재난의 날을 ()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유다의 자손들이 멸망하던 날 너는 그를 두고 () 말아야 했다. 환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아야 했다.”

(오바드야 1,12)

“구원받은 이들은 () 산으로 올라와 () 산을 다스리리니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되리라.”

(오바드야 1,21)

[기도묵상]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기도입니다. 자주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기도를 바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1-855-388-4141 Los Angeles, CA 90006

써니사이드 장의사

www.sunnysidecremation.com FDR #2224
이민 1세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 오신 분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 예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세와 다리역할을하며 영어와 한국어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린 "마이스토리"를 100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LA: 213-500-8434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J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마리아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천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파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켈미-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워(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